

【 P2-4 】

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영유아의 성장과 식이섭취 실태 조사 연구

장지혜²⁾, 한영신¹⁾, 정상진¹⁾, 최혜미²⁾, 안강모¹⁾, 이상일¹⁾

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소아과¹⁾,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²⁾

A study on the growth and food intake of infants with atopic dermatitis

Ji-Hye Jang²⁾, Young-Shin Han¹⁾, Sang-Jin Chung¹⁾, Choi²⁾, Kang-Mo Ahn¹⁾, Sang-Il Lee¹⁾

Department of Pediatrics, Samsung Medical Center, Sungkyunkwa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¹⁾,
Department of Food & Nutrition, Seoul National University²⁾

본 연구는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영유아의 성장과 식이 섭취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삼성서울병원 알레르기 센터를 2003년 4월에서 10월 사이에 내원한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영유아(6-24개월) 67명을 대상으로 아토피 성장발육, 빈혈 및 영양소 섭취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.

성장 발달의 지표는한국 소아 발육표준치(1998)를 기준으로 하여 나이에 따른 체중(Weight for Age), 나이에 따른 신장(Height for Age), 비체중(Weight for Height)을 표준편차 점수(Z-Score)로 환산하여 성장 발육상태를 평가해 보았다. 연령에 따른 체중, 신장, 비체중의 표준편차 점수의 퍼센트는 19-24개월의 신장에 대한 표준편차 점수의 평균 0.14±0.88을 제외하고 모두 음의 평균값을 나타내었으며, 특히 신장에 따른 표준편차 점수의 평균값이 6-11개월이 다른 연령 군 즉, 12-18개월, 19-24개월 보다 유의적으로 낮은 -0.59±0.78이었다. 혈색소(Hemoglobin)로 빈혈을 판정하였을 때, 11g/dl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한 결과 남아가 7명(10.4%), 여아가 4명(6.0%)으로 총 11명(16.4%)의 대상아가 빈혈로 나타났다. 연령에 따른 권장량 대비 섭취는 6~11개월에서는 철분의 섭취가 권장량의 85.7%에 해당하였으며, 나머지는 권장량에 상회하는 수준이었다. 12~17개월에서는 열량과 아연의 섭취가 각각 권장량에 대하여 74.6%, 81.4%로 나타났고 그 밖의 영양소는 권장량에 상회하는 수준이었다. 18~24개월에서는 에너지, 칼슘, 아연의 섭취가 각각 83%, 79.2%, 76.1%로 나타났다.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영양소 섭취에 있어 연령별 차이는 있으나 권장량에 미치지 못했던 영양소는 에너지, 칼슘, 철분, 아연이었다.

아토피피부염은 식품과의 연관성이 높은 질환으로 영양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질환이다. 본 연구 결과를 살펴볼 때 아토피피부염 환아가 영양관리에 있어 칼슘, 철분, 아연섭취에 주의를 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빈혈검사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.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성장과 영양과의 관계를 명확히하기 위해 좀 더 많은 연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